

[ 종합·국제 ]

■ 문산~봉동 오가는 남북 화물열차 운행 시작

개성공단 물류 개선·경협 활기

비용 30% 절감... 한반도 중단열차 복원·대륙철도 연결 기대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됐던 경의선 열차 운행이 56년 만에 11일 재개됐다.

여객열차는 아니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원자재와 생산제품을 번갈아 실어나르는 화물열차가 냉전의 상징인 군사분계선(MDL)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됨으로써 남북 철도의 정기 운행 시대가 열린 것이다.

화물열차 개통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첫 결실로서 반세기 이상 끊어져있던 남북의 철길을 잇는다는 의미를 넘어 남북경협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화물 수송시간이 줄고 경비가 절감돼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남북 간 철도를 이용한 경협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여태까지 남북 간 물류는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고 일부 도로운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철도를 이용한 남북 경협시대가 본격화에 오를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우 화물의 80% 이상이 철도로 수송된다는 점에서 남북 철도 연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화물의 경우 철도 수송이 비용 면에서 도로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이 철도를 이용해 부산항까지 연결됨에 따라 일본 등을 겨냥한 제품 수출이 용이해지고 지방에 분거지를 둔 기업들의 공단 입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는 "철도를 이용한 남북물류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분양을 할 경우 그동안 물류 문제로 입주를 꺼렸던 지방기업들의 입주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물열차 개통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중단열차

의 완전한 복원과 나아가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와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은 이미 지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통해 개성-신의주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철도의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통연구원 안 센터장은 "앞으로 서울과 평양 간 철도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경우 현재 인천과 남포 간 해상운송을 통한 수송에 비해 경비가 6분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나를 남북화물열차가 11일 오전 북측 판문역을 향해 도리산역을 출발하고 있다. /경인일보=임영수 기자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1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TCR과 TSR 등 대륙철도를 멀리 내다보며 작은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완성의 길은 엄청난 역사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지 10대 뉴스 선정

미안마 민주화시위  
버지니아텍 참사도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10일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타임은 탈레반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페르베즈 무사라프 대통령이 권좌를 위협받고 있는 파키스탄 정정불안을 비롯해 올 여름부터 미 경제를 강타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를 올해 10대 뉴스에 올렸다.

미안마 민주화시위와 한국계 조총회의 무차별 총기난사로 33명의 희생자를 낸 버지니아텍 참사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이밖에 중국산 장난감 리콜 파문,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 시리즈 완간, 미국의 이라크 증과 논란, 줄기세포 연구 진전, 배리 본즈의 스테로이드 복용 논란, 애플폰 출시도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로 분류됐다.

타임은 2·13 합의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이어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 진전을 올해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아시아권 10대 뉴스로 꼽았다.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된 메드베제프 제1부총리(왼쪽)와 푸틴. /연합뉴스

"내 후계자는 메드베제프"  
푸틴 '젊은피' 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의 후계자로 '젊은피'를 택했다.

여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일주일 앞두고 누가 푸틴의 낙점을 받을까 하마평이 난무한 가운데 지나간 안갯속을 헤치고 나온 인물은 올해 42살의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제1부총리.

헌법 규정에 의해 재출마가 불가능한 푸틴 대통령의 후계 구도는 올해 2월 세르게이 이바노프(54) 국방장관이 제1부총리로 승진하면서 이바노프와 메드베제프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페테르부르크 지사이자 푸틴에게 충성을 다하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와 같은 '깜짝' 인물도 거론되고, 지난 10월 내각인사에서 빅토르 주프코프 연방재정감시국장이 일약 총리로 발탁되면서 대선 후보군

에 추가돼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결국 푸틴은 자신과 같은 연방보안국(FSB) 출신으로 자신보다 한살 아래인 이바노프 대신 13살이 어린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부총리를 택했다. 사실 이바노프와 메드베제프는 푸틴과 고향(페테르부르크)이 같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 경력에서 보듯 이바노프는 '강성' 이미지인 반면 메드베제프는 '은순형' 인물로 평가받으며 대조를 이루었다.

법학박사이자 변호사인 메드베제프는 푸틴과 같은 대학 같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푸틴이 페테르부르크 시 대외관계위원장이던 1991~1996년에 대외관계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94년부터는 제1부시장이던 푸틴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연합뉴스

"규칙적인 섹스는 건강·장수의 비결"

뉴스위크, 매주 섹스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도

'규칙적인 섹스는 건강의 비결.' 매주 최소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섹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섹스가 장수에서 고통 경감까지 놀라운 정도의 혜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혜택이 섹스 행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적어도 6가지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1~2회의 섹스를 하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의 면역 레벨이 향상된다.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윌크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규칙적인 섹스를 하게 되면 면역을 높여주는 항체인 이뮤노글로빈 A의 수치가 3분의 1 가량 올라간다.

스톡홀름 로열 에든버러 병원 연구진의 실험결과, 7~12년 가량 젊어 보이는 '슈퍼'들은 일주일에 평균 4회 이상의 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는 분 당 4칼로리 이상의 열

량이 소모된다. 30분간 섹스를 하는 것은 허쉬의 키스초콜릿 4개를 소비하는 것과 같은 양의 열량이 소모된다.

섹스하는 동안 성적 흥분이 고조됨에 따라 엔도르핀과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양이 증가되며 이는 편두통을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컬럼비아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여성들은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예 섹스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생리주기가 규칙적이다.

/연합뉴스

차분한 대선? 김빠진 대선?

광주·전남 위법 크게 줄어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행위가 2002년 제16대 대선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위법행위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광주·전남 모두 크게 줄었다.

광주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위법행위 건수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선거일을 8일 앞둔 시점이긴 하지만 2002년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수사의 된 2건, 경고 26건, 주의 3건 등 총 3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다.

전남 역시 선거운동 개시 후 이날까지 고발 2건, 경고 4건 등 총 6건이 적발됐지만 지난 16대 같은 기간 경

고 13건, 주의측구 12건 등 25건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시·도선관위 관계자는 "제 17대 대선은 16대 대선보다 불·탈법 행위가 줄어드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이번 대선이 과거 양당 구도로 치열하게 전개된 선거전과 달리 다수 후보가 단합하고 있는데다 여론조사상 특정 후보의 독주에 따른 지역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뉴욕필 평양 공연은 또 다른 해빙 신호"

미국의 교향악단인 뉴욕필하모닉이 내년 2월 26일 평양 공연을 수락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은 '또다른 해빙 신호'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자란 메타 뉴욕필 사장 이 내년 2월 26일 평양 공연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하나의 문화적 돌파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첫전도시작반 277-80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개강 1월 2일 첫전도시작반 301-8111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도권 7월 1일 / 1월 2일 / 1월 3일